

제2장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의 도전

“21세기에는 과학의 어떤 분야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생물학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생물학은 인간복제, 휴먼지놈 프로젝트 등으로 이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물리학과 화학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생물학은 인간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세기에 신학에 가장 큰 도전을 준 학문분야가 사회학이었다면, 21세기에는 생물학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생물학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주제로 다루는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하버드대학의 사회생물학자 윌슨(E. O. Wilson)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생물의 일원이므로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모든 과학은 당연히 생물학이라고 선언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회과학은 재편성되어 진화생물학의 한 분과로 소속되어야 하며, 윤리학도 신학자와 철학자의 손에서 떠나 생물학화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같이 인간에 관한 종교적 교훈들이 다윈의 진화론과 유전학에 기반을 둔 사회생물학에 의해 정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화론 또는 과학적 환원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윌슨의 사회생물학적 인간론을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본성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생물학의 등장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Wilson, 1975, 42). 윌슨은 “인문학을 포함해서 사회학이나 다른 사회과학들은 생물학의 현대적 합성을 위해 남아 있는 마지막 가지들”이라고 단언한다(Wilson, 1975, 4). 사회생물학은 개체의 수준에서보다는 집단의 수준에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인 진화를 고찰한다. 거시적으로 인간을 살피므로써 사회과학이 보통 저지르는 ‘자아도취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회생물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일부 학습이론가 및 사회학자들이 신봉하는 문화결정론(문화가 인격체를 결정한다)을 배격하고 유전자결정론을 고수한다. 인간본성의 일반형질들은 다른 종들보다 매우 특이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행동들이 포유동물의 것이며, 영장류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인간만이 자의식이 있다는 전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금기(근친상간의 병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자연선택)와 상승혼(여성이 부와 지위가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남성과 결혼하는 행위)도 인간에게만 보편적인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동물에게 해당되는 전형적인 것이다. 천성(nature)과 교육(nurture)이라는 오랜 논쟁을 낳은 구분이라고 비판하고, 인간의 정신적 발달도 어디까지나 “준비된 학습”이라고 주장한다(Wilson, 2000, 87-109). 인간의 정신도 백지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고 유아에서 어른으로 자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신축적이긴 하지만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주변 환경을 탐색해가며 의사 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이다. 인간행동은 유전자에 구속되어 있으며,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스도교 인간론의 핵심사상인 영혼과 자유의지를 철저한 기계론적 입장에서 비판한다. “우리 유전자들이 유전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물리적 사건들의 인과사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뇌 속에 진정한 독립행위자가 있단 말인가? 행위자 자체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다. 그러므로 자유란 단지 자기기만이 아닐까?”(Wilson, 2000, 111-112)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문화적 진화로 창조된 사회환경도 결국에는 생물학적 자연선택의 길이 된다. 자연선택에 의한 유전적 진화는 문화능력을 증진시켰고, 문화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전자 적합성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생물학의 전제들 위에서 윌슨은 인간의 본성을 고찰한다. 그 중에 성, 이타주의, 종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2. 성(Sex)

사회생물학에 의하면 성은 본래 번식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번식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무성생식

이 훨씬 효율적이다(박테리아 분열, 곰팡이의 수많은 포자 퍼뜨림 등). 쾌락을 주고받는 것도 성의 주된 기능이 아니다. 쾌락은 다용도의 신경계를 지닌 생물들로 하여금 시간과 에너지를 구혼, 성교 양육에 대규모로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일 뿐이다. 성행위는 해부학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기능장애(자궁외 임신, 성병)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활동이다. 구혼활동도 에너지의 측면에서 볼 때 비경제적이고, 포식자에게 살해될 위험을 증대시킨다. 다윈주의적 이익도 크지 않다. 오히려 유성생식은 무성생식보다 절반밖에 유전자 증식을 할 수 없다는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성이 진화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성이 다양성을 창조한다는 점에 있다. 다양성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적이고 간단한 성별이 없는 번식방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적증대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서 윌슨은 과감하게 양성의 본성적 차이를 주장한다. 암컷은 난자를 만들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개체요, 수컷은 작은 배우자인 정자의 제조업자로 정의된다. 인간의 난자는 정자보다 85,000배나 크며, 이것이 성의 생물학과 심리학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성세포 하나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여성은 평생 겨우 400개 정도의 난자를 생산하고, 여기서 최대 20개 정도만을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한 번 사정에 약 1억 마리의 정자를 방출한다. 그러므로 수컷은 공격적이고, 성급하며, 번덕스럽고, 무차별적인 전략이 더 유리하다. 이에 비해 암컷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수컷들을 식별해 낼 수 있을 때까지 수줍어하고 주저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인간은 “성적 상대의 교체가 대부분 수컷 주도로 이루어지는 온건한 일부다처형”이라고 윌슨은 주장하며 급진적 평등주의 운동에서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환원한 키부츠운동을 예로 들어 절대적 남녀평등주의의 폐단을 지적한다. 더불어, 윌슨은 가족의 붕괴가 진행 중인 현대사회에서 사회결합의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진화론적으로 옹호한다. 성적 쾌락의 궁극적 기능은 결합을 촉진하는 강화제이다. 생식수단은 이차적 목적이다. 윌슨은 성의 목적을 생식으로 보는 가톨릭의 교리를 생물학에 무지한 신학자들의 오류라고 혹평한다.

윌슨의 더 놀라운 주장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이다. 그는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정상일 뿐 아니라, 초기 인류 사회 조직의 중요한 요소로서 진화해온 독특한 자선 행위일 가능성이 크며 동성애자들은 인류의 진귀한 이타적 충동 중 일부를 운반하는 유전자담체”라고 추정한다(Wilson, 2000, 201). 동성애행동은 생물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뇌 속에 잠재된 진정한 양성성의 표출이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결합의 한 유형이고, 동성애자들이 존재함으로써 가까운 친족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윌슨은 동성애에 대한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편견은 불충분한 지식을 근거로 하는 오류라고 비판한다.

3. 이타주의(Altruism)

윌슨은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격언을 이타주의적 희생의 진정한 목적이 한 인간집단을 다른 집단 위에 놓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답을 원하지 않는 관용의 이타주의가 최고의 덕목으로 신성시 되나, 사실 그것은 사회를 결속시키는 극단적 현상일 뿐이다.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이타주의는 곤충과 동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포식자가 접근할 때 경고를 내는 작은 새들, 고아가 된 아기를 떠맡는 침팬지, 침입자에게 죽음을 불사하며 치명적 침을 놓는 일벌 등). 개체수준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사실상 이기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번식이란 결국 유전자들이 자신들의 복사체들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이다. 특정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직접 번식하는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나, 일벌들과 같이 자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여왕벌)를 도와서 보다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인간의 이타주의도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귀한 영웅의 삶은 개인의 불멸성이라는 커다란 보상을 기대하여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비심도 선택적이며 이기적이다. 힌두교의 자비는 가까운 친척에만 해당되며, 불교의 목표는 이타주의를 통해 개인을 보존하는 것이다. “불교 및 기독교 국가들은 보편적 자비 개념을 포용하면서도 한편으로 침략전쟁을 방편으로 삼아 왔고, 그 많은 전쟁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Wilson, 2000, 216) 숭고한 도덕가치들의 문화적 진화도 유전적 진화를 대체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유전자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도덕은 다른 어떤 궁극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월슨은 유전적 결정론을 확대한다.

4. 종교(Religion)

월슨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인정한다. 그는 과학과 학습이 종교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무신론자들의 신념을 환상에 불과하다고 목살한다. 그러나 그는 종교행위들도 어디까지나 유전적 이득과 진화적 변화라는 차원에 측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란 무엇보다도 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사리사욕을 집단의 이익에 종속시키도록 설득 당하는 과정이다.

종교의 자연선택은 성직자적이고, 생태적이며, 유전자적이다. 종교의 지고한 행위는 결국 생물학적 이익을 제공한다. 그들은 대상화, 의탁, 그리고 신화화의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응고, 신성화한다. 월슨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종교, 과학적 유물론이 현대인의 세 거대 신화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생물학이 없는 사회생물학이고 과학적 유물론의 부정확한 산물, 즉 실패한 폭군”이다(Wilson, 2000, 263). 한편, 전통종교의 고대신화들은 과학에 의해 붕괴되고 있으며, 신학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과학적 유물론에 의하여 전통종교들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유물론이 가장 강력한 신화적 대안이며, 종교보다 우월하다. 과학적 유물론의 정수인 진화서사시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져야 할 최상의 신화이다. 월슨은 전통종교 대신 과학적 유물론을 강력한 신화로 구축하여 사회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프로메테우스적 과학정신을 주창한다.

5. 평가

월슨이 주장하는 사회생물학은 몇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자연주의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결정론을 근거로 하는 사회철학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무효화하고, 자유방임적 숙명론을 수용하게 된다(성차별, 인종차별, 우생학 등 기득권층 이데올로기 옹호).

둘째, 사회생물학은 범주적 착오를 범하고 있다. 한 존재가 이기적이기 위해서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Rolston). 그러나 유전자, DNA, 곤충 및 하등 동물에게 주체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다.

셋째, 사회생물학은 언어유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을 그 개념이 성립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에서 차용한 후, 그 유비를 자연과정의 기계적 해석에 문자적으로 적용한다(Gilkey, 186).

넷째, 종교적 근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환원주의의 일반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다섯째, 과학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신화를 창설한다. 월슨은 과학적 유물론으로써 전통종교 및 사상을 탈신화화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신화를 구축하는 비과학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

더욱이 성차별의 합리화, 신과 자유의지와 영혼에 대한 부정, 신학폐지론 등 월슨의 주장은 우리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회생물학이 파헤쳐 준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생물학은 그리스도교를 탈신화화하려는 모던프로젝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철학을 가지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을 가지고, 마르크스는 사회학을 가지고 한다면, 월슨은 생물학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러한 급진적 시도들에 의해 결코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신학적 용광로로 활용하여 부스러기들을 제거하고 신학을 제련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그것은 종교사상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환경론과 학습론이 군림해 왔지만, 사회생물학은 이를 거부하고 다시 본성론으로 회귀할 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새로운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신학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은 숭고한 희생과 이타주의의 탈을 쓴 종교적 이기주의와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쳐줌으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순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메타포들과 해석학적 지평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Peacocke, 110-111).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생물학이 분노와 혐오를

자아내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사회생물학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과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견해들이 있으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교정하여 기독교 인간학이 더욱 완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현대과학과 그리스도교』 (대한기독교서회, 20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Singer, Peter. 김성한 역(1999). 『사회생물학과 윤리』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 1983). 서울: 인간사랑.
- Wilson, Edward O. 이병훈·박시룡 역(1992). 『사회생물학 I, II』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1975). 서울: 민음사
- _____. 최재천·장대익 역(2005). 『통섭』 (*Consilience*, 1998). 서울: 사이언스북스
- _____. 이한음 역(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On human nature*, 1978). 서울: 사이언스북스.
- Wuketis, Franz M. 김영철 역(1999). 『사회생물학 논쟁: 유전인가, 문화인가』 (*Gene, Kultur und Moral: Soziobiologie-Pro und Contra*, 1990). 서울: 사이언스북스.
- Gilkey, Langdon(1995). "Biology and Theology on Human Nature." *Biology, Ethics, and the Origins of Life*. Roston III, Homes. Ed. Boston and London: Jones and Barlett Publishers.
- Peacocke, Arthur(1986). *God and the New Bi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lston III, Homes(1997). *Genes, Genetics, and God: Beyond Selfishness to Shared Val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